

2012.01.03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중국, 유명 유업외사의 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

### 1.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12.28) 주요 내용

- 지난 24일 중국의 국가질검총국은 지난 10월 중순에 실시한 200여 개 우유에 대한 표본검사 결과를 발표함.
  - 그 결과, 유명 유업회사인 명뉴(Mengniu)와 창푸(Changfu)가 생산한 우유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발견됨.
    - ※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여 암을 유발하기도 함.
- 국가질검총국에 따르면, 우유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원인은 흰 곰팡이가 편 사료를 소에게 먹였기 때문임.
- 이에 대해 명뉴(Mengniu)의 대변인 루젠쥘(Lu Jianjun)은 “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였으며,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.”고 해명함. 또한 “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,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농가들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.”라고 주장함.
- 창푸(Changfu)도 소비자에 대한 사과와 리콜을 실시하여 전량 폐기 처리함.
- 이번 유명 유업회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검출로 인해 식품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.
  - 2008년 멜라민 분유와 가짜 우유 파동 등으로 자국 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국산 제품 구입을 꺼리고 있음.
- 2011년 중국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5,000개 이상의 업체가 규정 위반 등으로 문을 닫았으며, 2,000명 이상이 구속되었음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